

수변 식생 건강성/자연성 평가 방법 비교 고찰

신혜지¹, 김은석^{p,1}

¹광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학부

하천 주변은 가뭄이나 홍수 등 유량의 변동으로 인한 생태적 교란의 빈도가 매우 높은 장소로, 교란으로 인한 식생 군집의 특성, 즉 식생이 없거나 식생 천이의 초기 단계가 타 서식지에 비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수변에 초본 및 수목들의 정착으로 인한 식생 번무화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수변 식생 번무화는 하천의 수량이 증가할 때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홍수의 위험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에 따라 수변 식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홍수 방재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생태계의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수변 식생 군집의 생태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변 식생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노력 또한 진행 중이다. 일면 상충되는 수변 식생 생태계에 대한 이러한 접근들을 종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변 식생의 생태적 건강성과 자연성을 유지하면서 수리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변 식생 관리 방안 마련이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고된 여러 가지 수변식생 건강성/자연성 평가 방법과 현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수변 식생 건강성/자연성 평가 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들을 제시하고, 수변 식생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도 홍수 방재에 효율적인 수변 식생 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교신저자 E-mail: eunsukkim@gist.ac.kr

* 본 연구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